「車掌酷使」에 檢察서「메스」

버스車主 모조리立件

우리나라선 처음, 勤勞基準法違反嫌疑로

1次로 30名起訴

「權力濫用·橫暴」에 强權發動

30일 검찰은 「사용주가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생존권(生存權)의 이념과 모순되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실시함으로써 고용인들의 생활을 위협했다」는 등의 이유를들어 「버스」 여차장의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내 「버스」 업주전체가 저지르고 있는 비위사실을 가려내는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지검 공안부 장원찬(張元燦)검사는 21개의 시내 「버스」 회사소속 차주 5백20여명(총운행 「버스」 약 9백40대、고용차장 약 3천명)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모두입건、그중 서울승합(乘合) 주식회사 소속 「버스」 차주 송근태(宋根泰=44)씨등 30명을 동법 제42조를 적용、제1차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동사범으로 검찰이 입건、기소한것은 우리나라노동법상 이번이처음인데 검찰에의하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그들이 고용하고있는 여차장들의 근무시간을 1일평균16시간으로 연장하여 법정연장시간인 1일9시간보다 7시간이나 초과해서 근무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①유휴노동력을 취업시키고 ②차장의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기할수있으며③이로써 차장의 부주의에서오는 교통사고를 방지할수있고 ④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줄수있다는 점을 들어 「버스」 2대에 차장 1명을추가채용、차장으로 하여금 6일근무1일 휴무로 하되 하루의 노동시간을 3분의2 줄이도록 업주에게 수차 권고했으나 업자측이 노골적인 무성의를 보이므로 강제권을 발동한것이다.

한편 검찰은 「버스」 차장을 추가고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사전인상시켜야한다는 업자측의 주장에대해 「버스」 2대에 차장 1명만 더고용하면 「버스」 1대당 7백원씩만 더지출하면되므로 (차장1人月給1천4백원) 업자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이를일축、앞으로 차주의시정이없으면계속엄단할방침을세우고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제1백10조는 동법42조를 위반할경우 징역3년이하 또는벌금3만원에 처벌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拘束適否審棄却

朴鐵道廳長등3名에

30일 서울형사지법은 철도청의후사건으로구속된 청장 박형훈(朴亨勳=43)동비서 권용방(權容邦)、전설국장서리 윤정후(尹正厚=53)씨등 3명에대한 구속적부심사신청을심리한끝에이유없다고기각결정을내렸다.

清原·牙山 2個區

오늘부터現場檢證

選訴處理위해

대법원 방준경(方俊卿)판사등 5명의 수명(受命)판사들은 충북제2지구(淸原=原告 自由黨、被告 選管委長)와 충남 제11지구(牙山=原告·民政黨、被告 選管委長)등 2개지구의선거및 당선무효소송의 현장검증을 1일부터 1주일간에걸쳐 실시한다.

이날하오 동재판부는 천안(天安)지원에서 관계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呼訴」를 했을뿐"

法院亂入 公判續開

두民間人、公訴事實否認

오늘梁判事등 證人出廷

30일에 속개된 법원난입사건의 6관구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黃鏞甲준장)는 동사건주동자로 나타나구속기소된 공수단출신 김상목(金相睦=31=萬里洞1가42)유국준(劉國俊=31=孫孫洞149)등두예비역중령(1년전제대)에대한 신문을마친다음 1일하오 속개될공판에는 사건당시 검찰숙직검사인 정치근(鄭致根)씨와 숙직판사인 양헌(梁憲)씨와 법원서기및 수위등8명을 각각 증인으로채택、출장시키기로 했다.

유·김양피고인은 최문영대령의 지시를받아 지난5월21일새벽 법원과 양헌판사집에들어가 학생「데모」방지를위해「경미한 처벌이없기를「부탁」하는것보다도약한「호소」를 했을뿐」이라고 말하고 협박등을한일은 없으며 『도든 행동이정당한건』이라고주장했다.

『도와달라』는 최대령의부탁으로 황대위등을 인솔했고 앞장서서검사와 판사에『뜻을전달했다』는두피고인은「데모」방지의 최선책이양판사와 논의되었다고만밝혔을뿐 구체적인내용은 일체말을하려하지않았다.

"두번째들어올때 警察官들도함께"

法院書記梁氏證言

증인으로 나온 검찰서기양은석(梁殷錫)씨는 이들이 두번째법원에 들어올때 3、4명의 경찰관이 함께 들어 왔다고 밝히고 『공포감이 없었느냐?』는 신문에 『상식으로 판당해달라』고 말을피했다.

京鄕新聞社機추락

新聞發送하고오다

신문발송을마치고 춘천에서 서울로돌아오던 경향신문사소속 HL5형HL1014호(조종사 최남구=34)가 30일하오 의정부상공에서「엔진」고장으로추락、「프로펠러」와착륙장치가파손됐으나 조종사는무사했다.

◇劉피고(右)와金(左)피고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있다

公判을延期

管轄權裁定申請

慶熙大生8名두번째軍裁서

30일상오10시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裁長=廣容采中領)는 경희대학생 한정재(韓禎宰=20)등8명에대한 내란피고사건두번째공판을 개정했다. 이날공판에서 관선변호인 강익엽(康益燁)씨는 대법원에 재판권관할에관한 재정신청을 냈다는이유로 공판연기를 요청、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공판을 연기했다.

拉北人士送還위한 百萬人署名은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의 署名이 앗긴自由를 回復한다"

누구라도이름적고 도장찍으면됩니다

날마다 아침10時부터一齊히

14년동안 공산치하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납북인사를 자유조국의품으로 맞이하려는 겨레의 숙원을풀고자 본사가 전개하고있는「백만인 서명운동」은 1일부터 전국각처에서 그실천에 들어서게되었다. 대한적십자사의 협찬을받아 본사가 주관하는 이서명운동계획이 발표되자 각단체를비롯해서 전국각처에서 단체와 개인의 열렬한 호응을받아 이운동의 순조로운 전개는 물론 납북인사의송환이라는 무거운과제도 기필코 달성되리라 기대되고있다. 매일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 진행될 서명절차는 다음과같다. ▲서울특별시와 각도청소재지에서는 가두(街頭)와 직장별로 서명을 하게된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를 포함한 주요가두 14개소(1면사고참조)에서 한장소에 숙대생(淑大生) 2명이 서명용지를 갖고 뜻있는 분들의 서명을 직접받는다. ▲지방에서는 본사지사·지국을중심으로 각촌락、각직장및 주요도시가두에서 실시한다. ▲이운동에 호응서명할 사람은 직장이나가두에 비치된 「서명자명단」에 성명、성별、연령、직업、주소를적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면된다.

오랜만의降雨

어제밤 中部地方에

오랫동안의 가뭄끝에 서울을비롯한중부이북일대에30일밤 비가내렸다.

1일새벽0시현재중앙관상대집계에의한 강우량은 인천지방의12·3「밀리」가 으뜸이고 서울의6·8「밀리」、목포3·0「밀리」、제주도2·9「밀리」등이다. 이강우량은 갈라터진 천수답에는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나 계속강우량은 증가할지도 모른다고 관상대는 말했다. 이날영남과 영동지방에는 비가내리지않았다.

颱風윈니 比國强打

【마닐라30日發AP·UPI=本社特約】 풍속1백18「마일」의 맹렬한태풍「윈니」호는30일「필리핀」수도「마닐라」시와 인구가 조밀한 북부지방을 휩쓸고 최소10명의생명을빼앗고 수명에게 상처를입혔다.

82년만에 가장파괴적태풍인「윈니」호는 또 수천명을 거리에헤매게했으며 이로인한 피해액은 수억「페소」(수백억원)에달했다.

深夜의暗黑20分間

서울一圓一時停電

1일영시55분부터 20분동안 서울시내일원은 캄캄칠야가 됐었다. 수색변전소의 접속사고로 알려진 20여분동안의 정전사고로각조간신문사동전공장이「올·스톱」됐었다.

移民法違反立件됐던

金潤文氏어제出國

在파라과이韓人協會長

이민법위반혐의로 지난24일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던 재「파라과이」한인협회장 김윤문(金潤文=39=忠武路1가21)씨가 30일하오 서북항공기편으로 출국했다.

2對1조금넘을듯

西獨갈鑛夫募集마감

노동청이 30일하오 5시에 마감한 서독파견광부모집은 9백명모집에 전국적으로 약2천명이 응시한것으로 추정되어 그경쟁률은 2대1이 약간넘을것같다.

주운물건

「피어선」서학원대학부2년에 재학중인 김우경(金字經=22)군은 지난27일 하오3시40분쯤 신촌(新村)역구내에서 여자손목시계1개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달라고 30일하오 본사에 맡겨왔다.

○…수은주의 눈금이 예년보다 섭씨 5、6도를 더 치닫는 혹서가 계속되면서 어느새 7월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7월은 성난염제(炎帝)의 횡포에 시달리는 계절.

○…관상대는 장마철이 예년보다 늦게 7월에 들겠다고 예보했고, 초복(20일), 중복(30일)도 염홍을두고 이달에 끼어있어 최고기온 섭씨37도 예상의 혹서에겹친 장마철의 후텁지근한 불쾌지수가 높아질것이라니 생각만해도 숨이가쁘다.

◇사진=피서 인파 부르는 仁川松島海水浴場

◇◇◇◇◇◇◇◇◇◇◇◇◇◇◇◇

炎帝는37度 오르내리는 伏더위 거느리고

메모

▲1日=萬國郵便聯合創設日 ▲2日=救世軍創立日 ▲3日=大韓敎聯全國代議員大會(大邱서) ▲4日=美國獨立宣言記念日、比律賓獨立記念日 ▲7日=中·日戰爭勃發記念日 ▲14日=李儁烈士忌日、佛蘭西革命記念日 ▲17日=制憲節 ▲20日=初伏 ▲23日=大暑 ▲24日=初代正·副統領選擧記念日 ▲27日=休戰調印記念日、第1次大戰勃發記念日 ▲30日=中伏

여기 푸른 얘기가…

…⑥…

☆…「집없는 아이들의 집으로 가고픈맘을 이곳에 끌어…」…………☆

☆…애꾸눈인 한 열일곱살의 고아가 혼자 힘으로 20석의 도서관을꾸민…☆

☆…그벽에 그런 글귀가 써어있었다. 6척높이의 책장 다섯개에 2천5…☆

☆…백권의 누더기 책이 말끔히 가다듬어져 꽂혀 있고 그옆에 「꽁초천…☆

☆…사」로불려진 한소녀의 조그마한 선의로 새로놓여질 책장이 차근차…☆

☆…근히 마련되어가고 있었다.

열일곱살孤兒의힘으로無料圖書館

"아는것이 힘"

집없는아이들의 집으로가고픈맘을 끌어…

「꽁초天使」도共感…誠金

점심굶고 모은책 2千5百권

○…서울 상도동134의37 「푸른 숲속」、천애(天愛)고아원의 고아인 허홍(許洪=17=東都工高3년)군은 직장에서 꽁초를 모아 걸인을 도와온 이영희(李英姬=中央電話局근무)양의 기사(本報6월18일자)를 읽고 이「꽁초 천사」를 자기가 만든 도서관에 초대해서 가엾은 처지에서 가엾은 사람을 돕는데 공감을 나누었다. 한 고아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에 느낀바 있었던 이양은 6·25날 중앙전화국장으로부터탄 선행의 상금1천원을 허군의 도서관、새책장만드는데 기증했다. 그리고 앞으로 꽁초모아 판돈으로 책을사서 그책장을 채우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부모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허군이 길가에서 이 고아원에 들어온것은 1947년、세살때」. 원장 허근(許樑)씨의 양자로 입적해서 고등학교까지 입학할수있었던 그는 친구들이 준 몇권의 교과서와 네권의 위인전을 혼자읽기엔 너무 소중하고 고아인 자신도 책을 읽을수 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고아원 친구들과 서로돌려 보게된것이 이 도서관의 첫걸음이였다. 학급친구들이 가엾다고 푼돈을주면 그것을 아꼈고 소풍갈때 추렴해준 몇10원 돈을 거기에 보탰으며 차를탈걸 걸어 거기에 보탰다. 점심을 굶어 위인문고며 명작전집을 한권 두권 사모았다. 그렇게 5백권을 모으는 동안、이정을 알아챈 급우들이 허군을 돕는 모금운동을 벌였다. 작년「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이급우들의 선의로 2백권의책을 사보탰고 또 급우들이 한권 두권 가져다준 책이 4백권」.

허군은 헌 병을 거두어다가 엿장수가 갖고다니는 헌책과 바꾸어 책장에 꽂았다. 그렇게 해서 2천5백장서의 도서관을 꾸미어놓고 말았다.

○…동화책도 1백권을 샀다. 1백50명의 고아에게만 보이기가 너무 허전해서 마을어린이와 중고등학생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도서관을 꾸려나가는데 허군의 손은 너무 바빴다. 한국문학전집을비롯、각종전집를 그리고보모들이 보고 기증한 각종잡지들이 늘어나자 마을의 부인네들도 드나들기시작했다. 장바구니에책을넣어들고 고아원에 들러 책을바꾸어 가는 부인도 있었다.

허군은 이무료도서관을 꾸려나가는 일밖에도、이름없어 원장 성(姓)마저 허(許)가가된 18명의 아우들에게 학용품을 대야했고、6학년학생인 남녀고아들11명에게 밤마다 과외수업을 시켜야했다. 그는 이들을 위해、학교에서 쓰다버린 백묵동강이를 한줌씩 추쳐와야만 했던 것이다.

○…이제 한소녀의 선의로「천사서고(天使書庫)」라 이름지어진 책장이 다시 마련되었고 1천원어치의 새책이 꽂힐 참이다. 그리고 이소녀의 꽁초선의로 어떤새책이 선을보이게될지、이미 독서광이된 소녀 녀댓명은 저희들욕심대로 책이름들을 대는데 경황이없었고 밥도 먹지않고 책만 읽는대서 꾸지람듣던 한꼬마가 모퉁이로 슬그머니 숨어든다. (圭)

◇…혼자힘으로 도서관을 만든 許洪군

◇오늘도 무료도서관엔 만원…꼬마들이 책을 읽고 있다

날씨 (1日)

해뜨는시각=5시14분
해지는시각=7시57분

▲中部=북동풍후 남서풍、흐린날씨에 때때로맑음(서울기온30도~21도)
▲湖南=남동풍、흐린날씨에 가끔맑음
▲嶺南=북동풍、맑은날씨에 가끔흐림
▲嶺東=남동풍、대체로 흐린날씨에 한때비
▲濟州=북동풍、대체로흐리고 한때비가오는곳도 있음

◇各海上

▲西海=흐린 날씨에 때때로맑겠으나 한때 비가오는곳도 있음(파고1m)
▲南海=흐린 날씨에 때때로 맑음(파고1m)
▲東海=남동풍, 맑은날씨에 때때로흐림(파고0.5~1m)

詐欺는쓰레기에도

"利權맡게해주마" 11萬餘원꿀꺽

서울철도공작창의 쓰레기를 맡게해주마고 11만5천원을 받아먹은 5원동지회 한강로3가 3동회 윤영부장이며 모사기자를 사칭하고다니던 박내영(朴來永=37)이 30일 경찰에 구속되었다.

박은 지난6월초순께 서부이촌동에사는 박정룡(朴貞龍=54)씨에게 동공작창의 쓰레기를 팔려주마고 속이고 돈을 가져갔던것이며 그밖에도 영등포공작창、중부운전사무소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에대한 이권을빙자하고 많은돈을 사기해먹은 혐의를받고있다.

8百名이食中毒

學校서나눠준 빵먹은兒童들

【麗水에서本社特派員 林永善發】 30일하오2시30분 여수중앙국민학교 결식아동9백63명이 학교에서 나누어준 옥수수가루로만든「빵」을 먹고 8백여명이 식중독、그중2백여명은 심한 증상을 일으켜 치료를 받았다. 이「빵」은「케어」에서 보내온 옥수수 가루로 여수시 중앙동 중앙제파소에서 29일상오에 만든것이라한다.

신고를받은 경찰은 중앙제파소 주인 이철제(48)씨를 연행、원인을 조사중이다.

"司法試驗不合格은 억울"

13名、李總務處長官걸어訴訟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후 사법시험에응시、불합격된 김성권(金聖權)씨등 13명은 30일 이석제(李錫濟)총무처장관을상대로「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서울고법에제기했다.

전기13명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이 12회내지 14회 행정과고시에 합격한후 지난3월에 시행된 사법시험에 응시(4과목면제)、3과목만 시험을보았는데 피고는 사법시험령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위법、부당하게 불합격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人氣얻은韓國服地

第1毛織서 美에첫輸出

미국에 복지(服地)수출을 추진해오던 제일모직(第一毛織)회사는 지난28일 제1차분으로 3만마(碼)에 6만4천불 어치의 첫선적을 끝내고 2、3일안으로 2만마의선적을 계속마칠 예정이며 연간1백50만불어치를 수출할 예정이라한다.

拉致軍人의 送還을要求

유엔側、停戰委서

【板門店에서本社特派員 申東濬發】30일 이곳에서 열린 제184차 군사정전위원회의에서「유엔」측수석대표「콤스」미공군소장은 2년전에 북한괴뢰측이 비무장지대 남쪽 남방한계선이남에 불법 침입하여 납치해간 한국군 4명을 돌려보내주도록거듭요구했다.

"拉北人士送還하라"에 北傀記者는 딴전부려

=板門店南北記者會談?에서=

○…「6·25」「아아! 잊으랴 어찌우리 이날을」은 같은 핏줄의 민족이면서 남한 땅 사람만의 잊을수 없는 날이었나 보다. 그날로부터 14년이 지난 닷새후인 30일、뙤양아래「6·25」후에자탄 판문점(板門店)의 숨가진 그늘아래 마주앉은 남북기자들의 회담(?)에서 북괴기자들은「6·25」를까마득히잊었다.

○…「남침 기념식전이라도 성대히올렸소?」「이젠 그리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서 떼어간 남편을 돌려줄만하지않소?」하는「유엔」측 기자질문에 미리교양파제를 받지못한듯한 북괴기자들은 한결같이 어리둥절하며 공무니를빼고 화제를 돌리려애썼다. 「8만명이나 강제로 납북해간 사람들을 송환하라 말이요」「아니「납북」(拉北)이란 단어조차 알지못하는 눈치」.

「조선일보사주최로 남북인사 송환을위한 백만명서명운동을벌이고있소」「아니 백만명가지고 무엇을하겠단 말이요」라고 북괴측기자는 딴전을 핀다.

○…밖에서 남북기자들이 자유회담(북괴기자들은 주어진과제의 선전에만 광분했지만)을 벌이고있는동안 본회의장에서는「유엔」측수석대표「콤스」소장이 2년전에 강제납북해간 한국군 4명을 즉시송환하라고 북괴대표들을 인도적인애정론에호소하여타이르고있었다.

납북된우(禹)중위부인의 편지사연을 낭독인용하면서 『비록 수가적고 그들의문제가 작은것일지라도 자그마한행복을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안겨주는것이 보다큰문제를 성실하게다룰수있는 바탕이다』라고말하고 『우리가 다같이 개개인들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수 있다면 아마 언젠가는보다 더권한이많고 보다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관계되는커다란문제를 다룰수있을것이다』라는 철학적인명연설로내외관광객을감동시켰다.

관광안내
7월3일~6일 (3泊4日코—스)
★雪岳山과 關東八景 2,300원(宿食提供)
7월11일~12일 (1泊2日코—스)
★仁川 靈芝島 1,200원(宿食提供)
★土·日코—스 光陵. 玉流瀑布. 逍遙山 仁祖大王陵. 仁川八尾島
한일교통 (73)6612~15

역도표

*왜 한국 사람은 여름을 타는가?

■ 백미(白米)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들 식생활에는 항상 많은 부족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본래 현미(玄米)의 쌀눈(胚芽)에는 〈비타민〉B군이 풍부합니다만, 이것이 백미로 정제되고, 밥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비타민〉B군이 약 1/1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여름을 타는데는 〈비타민〉、〈아미노산〉、〈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 "원기소"는 효모의 풍부한 〈비타민〉B군을 비롯한、각종 〈비타민〉、〈아미노산〉、그리고 〈미네랄〉등을 동시에 보충해 주므로 여름을 타는데는 물론、우리들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만큼 긴요한 국민영양제 입니다.

▼발육기의 유소아에는 어린이원기소
▼젖먹이·젖떼기에는 베이비원기소

원기소

제조발매원: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